

뜨 땅, 그 풍경건축(風景建築)에 관하여

The Floating Land - About its Landscape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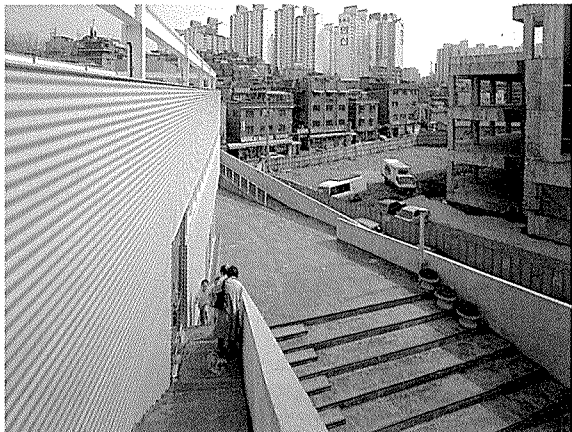
이공희 / 국민대학교 건축대학 전임강사
By Lee Gong-Hee

역시 커뮤니티시설이 되는 성동문화회관과 마주선 276평의 땅에 어린이집과 동청사를 360여평에 담은 건축이 행당1동 청사이다.

이 건축이 갖고 있는 건축가의 본질적 의사를 뒤로하고 일견한다면, 이 건축이 갖는 문제는 두 가지 이슈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기능을 한 건축에 담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별다른 질서없이 벌어진 군소건축을 배면에 이웃하면서 좁고 긴 삼각형의 대지에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하는 일이었으리라.

전자에 대한 건축가의 대처는 한 건축에 서로 다른 기능을 담는 일이 그러하듯 진입부의 높낮이의 조절을 수단으로 서로 다른 레벨링으로 해결한다.

지면층에는 어린이집과 주차장을 서로 다른 진입으로 분리하면서 각기 수직통로를 갖도록 하면서 상층의 레벨에는 동사무소의 기능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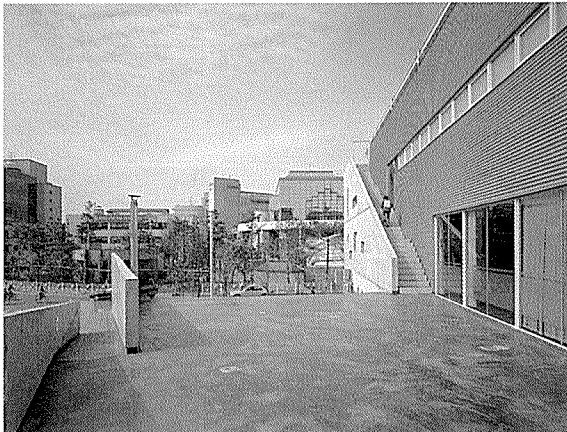
동사무소가 갖는 출입구의 레벨이 또 다른 지면층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완만한 계단은 장애인 램프까지를 동반하지만 그 본래의 목적을 만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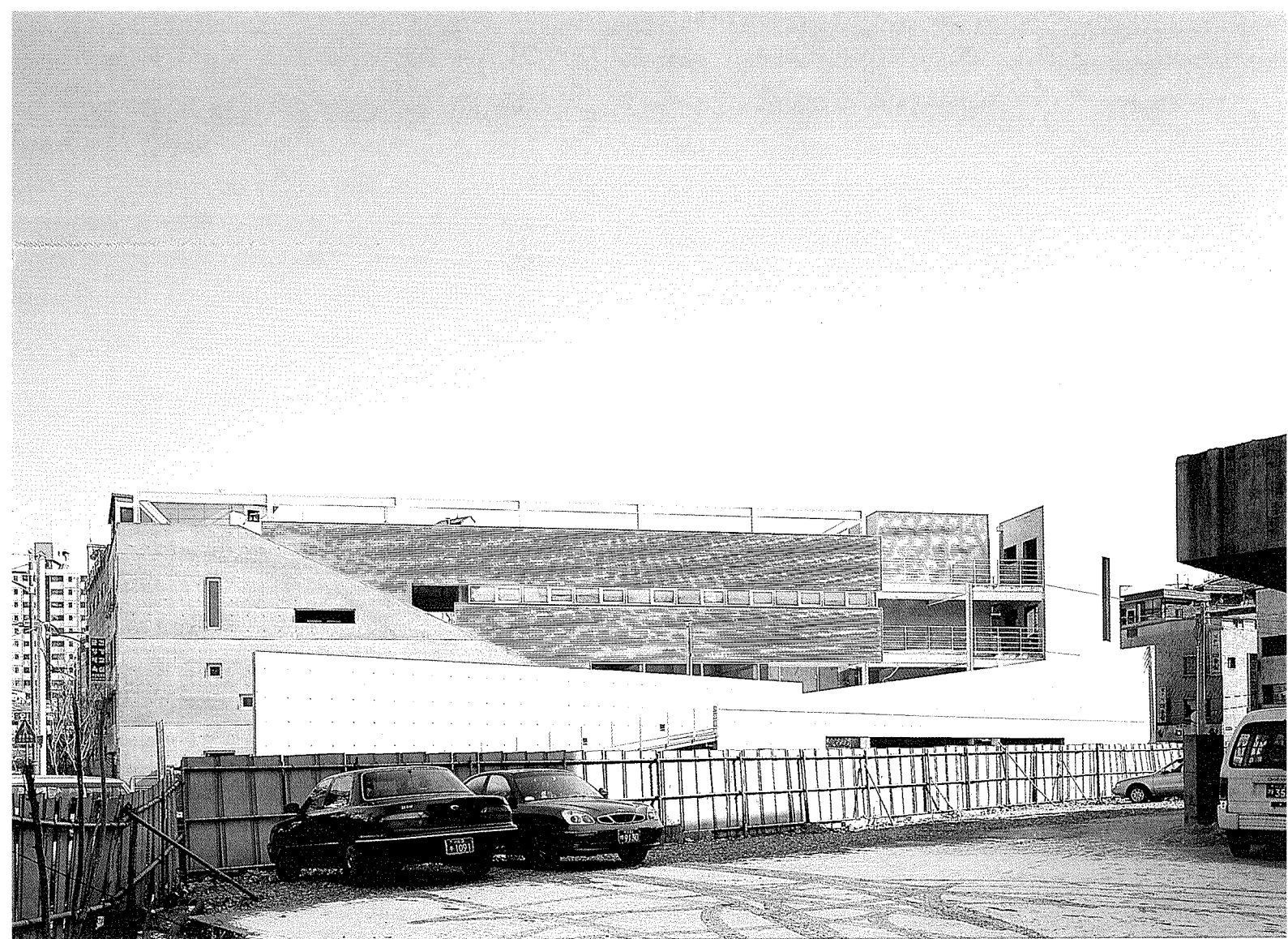
그렇게 만들어진 데크층은 이미 지면으로부터 한층 올라왔지만, 그 슬라브는 이미 데크라기 보다는 또 다른 지면으로 사용되기를 원한다.

후자의 좁고 긴 삼각형의 대지에 대한 대응은 몇가지 대안이 있었으리라는 가정을 해본다.

우선 김인철의 건축에서 발견되는 기하학적 원형의 채택이 그 대안이었을 것이다.

대지 한켠에 정방형의 건축으로 놓았다면 모서리 삼각대지의 느낌은 희석되었을런지도 모를일이다. 한편 그곳에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운 원형으로 생긴 평면을 놓았다면 별다른 질서를 찾을 길 없는 이 대지에 구심성을 발휘하여 또 다른 주변과의 관계가 성립되었겠지만 꼭 이 땅에서만





해답은 아니었으리라.

이러한 일반해가 가지는 속성의 유혹으로부터 이 건축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하는 의문이 그 다음 사고와 연결된다.

점증 / 상승

이 건축의 표징으로 본 주제는 점증 일게다. 그 점증으로 확산된 조형은 수직적으로는 상승되어 보이고, 평면을 그리는 선 따라 읽어 내려가면 예각의 속도를 느낀다.

이 건축이 일반해로부터 자유로웠던 것처럼 땅의 구축, 여유와 잉여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이 건축이 대지에 적응하는 구법은 이 건축이 갖는 필지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지의 모서리로부터 출발한 시점은 이동하여 건축의 중점을 대지의 외부까지로 확산시키므로 주변과 도시와 연을 맺는다.

이 가속을 가능하게 하는 건축가의 의사는 평면이 그리는

선의 연속이 그 원인이 되지만, 그것의 표현으로 나타난 것은 이 평면이 만들어내는 사선의 입면구성이다. 그 사선이 연장하고 있는 표현은 상승이고, 전체를 지배하는 조형의사는 점증이다.

평면의 선들이 대지 전체를 사용하여 도시환경에로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듯이 이 건축조형을 수직으로까지 연속하여 주변 건축의 풍경 속에 점유하려는 의사가 있다.

진입부를 출발점으로 하는 계단의 상승이 그 의사의 하나이고, 이 수직상승과 평행하게 연출되지만 속도를 달리하는 램프도 그 범주 안으로 보고자 한다. 이 계단과 램프를 경유한 동선은 동청사의 뜬 땅을 만나지만 곧 다시 지붕에 마련된 또 하나의 뜬 땅을 향하게 연출되는 동선은 연속하고 있다.

이 시선을 주도하고 있는 연속의 중심에는 여러 개의 지면을 가능케 한 점증의 의사가 근거하고 있고, 이 점증의 개념이 주변이 이루는 풍경으로의 회복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또 다른 구축을 연출한다. ㉮